

# 국가영어능력시험 영어 말하기/쓰기 평가 시행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심리적 부담<sup>1)</sup>

권 오 량  
(서울대학교)

**Kwon, O-Ryang. (2010). The teachers' perceptions and psychological burdens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speaking/writing tests of the National English Ability Test. *Foreign Language Education Research*, 13, 64-88.**

This study investigates secondary school English teachers' perceptions and psychological burdens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speaking and writing tests of the National English Ability Test, which is being developed by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he study surveyed 138 secondary school English teachers in Seoul. Although more than half of the teachers were aware of the new test, 18% of the surveyed teachers were not aware of the fact that speaking and writing skills would be assessed in the new test. Also, 22.7% of the teachers were opposed to the productive skills test. More than half (56.2%) of the teachers felt some psychological burdens toward the inclusion of the speaking/writing tests. Although the teachers admitted that serving as raters for the new test would help improve their teaching, the majority of them were reluctant to participate in the actual rating process. The teachers felt that the difficulty of subjective rating and the lack of time for the speaking and writing tests were serious problems in implementing the new test. The teachers were sensitive toward the students' test anxiety. They also indicated that they feel a strong psychological burden when making judgments on the students' performances.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are made based on the findings.

**Key Words:** the National English Ability Test, speaking test, writing test, teachers' perceptions, teachers' psychological burdens

## I . 서론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을 이해하기 위한 문제의 제기, 연구의 목적과 의의를 논한다.

---

1) 이 논문은 2010년 교육종합연구원 외국어교육연구소 지원금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1. 문제의 제기

제 6차 교육과정 이래로, 영어교육에서 의사소통능력을 강조해왔으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비롯하여 그동안의 모든 시험이 듣기와 읽기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었다. 이 듣기, 읽기 시험이라는 것도 실제에 있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모델을 따라서, 일정한 문항유형에 한정된 시험에다가, 5지 선다형으로 주어진 시험이었다. 가장 중요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러하다 보니, 각급 학교에서도 듣기와 읽기 시험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언어능력을 측정하고, 수업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2000년대 이후, 수행평가(performance assessment)가 현장에 소개되고 권장되었다. 포트폴리오, 인터뷰, 과업수행 등의 수행평가 방법을 교사들에게 소개하기도 하였으나, 이 수행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이해도가 낮아서, 현장에서 충분히 실행되지는 않은 점이 있다.

그 결과 표현능력에 해당하는 영어 말하기, 쓰기 능력은 매우 낮아졌다. 권오량 외(Kwon et al., 2003)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 중국, 일본의 고등학생들의 영어능력을 동일한 시험으로 측정하였는데, 듣기, 읽기 영역은 한국 학생들이 가장 우수하였으나, 쓰기 영역은 다른 나라 학생들 점수의 반 정도로 낮았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소위 실용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영어교육의 강화가 추진되고 있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영어교육 강화추진팀까지 구성되어서 여러 가지 영어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혁에서 중요한 주제가 바로 말하기, 쓰기 능력을 신장하는 것인데, 그 하나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새로 개발하는 국가영어능력인증평가 시험에서 말하기와 쓰기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도 수행평가를 위해, 말하거나 쓰기 평가를 권장해 왔으나,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표현능력 평가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의 부족, 시행상의 방법과 현실적 제약 문제, 말하기/쓰기 평가 기준에 대한 해석 문제, 신뢰도와 타당도의 문제 등으로 심리적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근래에,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영어능력인증시험에서 말하기/쓰기 평가를 도입한다는 방침이 정해지고, 이에 대비하여 교실현장에서도 말하기/쓰기 평가가 실질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교사들이 가지게 되면서 이와 같은 심리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말하기/쓰기 평가가 국가적인 범위에서 활성화되고, 교실현장에서도 보다 원활하게 도입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이러한 시험들에 대한 인식과 심리적 부담이 어떠한지에 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이해는 앞으로 말하기/쓰기 평가를 위한 교사 교육과 재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보다 나은 영어평가 설계와 시행을 위해서 중요한 기본 자료가 될 것이다.

## 2. 연구의 목적 및 의의

본 연구는 중등학교 영어교사들이 말하기/쓰기 평가를 준비하고 시행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심리적 부담을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중등학교 교사들은 영어 말하기/쓰기 평가와 관련하여 기준의 애매성에서 오는 불안감, 강요된 수행평가에 대한 거부감, 시험의 결과가 주는 영향과, 평가의 윤리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불편한 심리적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는 중등학교에서 장차 영어 말하기/쓰기 평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 일차적으로 중요한 자원인 교사 자원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가지게 함으로써, 말하기/쓰기 평가의 질적 향상과 시행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본 연구는 근래에 들어와서 관심을 끌게 된 평가에서의 윤리 문제를 확대하여 교사의 심리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데서 출발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 평가에서의 윤리문제가 과거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Stansfield(1993)는 평가의 전문성에 윤리문제가 포함된다고 보았고, 언어평가자가 시험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문제에 부딪치는 여러 상황을 언급하였다. Davies(1997a, 1997b)도 언어평가는 직업적 도덕성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직업적 도덕성은 시험을 시행하는 단계에서의 윤리적 문제를 포함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윤리적 문제는 수험자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시험 시행자에 대한 문제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교사의 경우에는 수험자에 대한 배려와 더불어 시험시행 자체에 대한 개인적인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영어교사가 말하기/쓰기 평가를 함에 있어서 직면하는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이런 평가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Bachman(2000)은 대단히 많은 교사양성 프로그램이 언어평가에 대한 강좌를 개설하지 않아서 교사들의 대부분은 이런 훈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Davies(1997b)는 교사들이 참조할 수 있는 전문적인 표준과 기준이 없다면, 교사들이 시험을 개발하거나 시행할 때에 의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시험의 질적인 관리와 해석상의 정확성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Jeon 등(2005)도 정확하고 타당한 평가를 요구하는 추세가 있어서 교사들이 보다 전문적인 표준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현장 교사들에게 필요한 평가상의 유의점과 표준을 제시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런 표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사들이 여전히 심리적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이에 대한 이해와 대처도 또한 필요하다. 따라서 이런 교

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세하고 적절한 표준과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험에 대한 이론적인 반영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인식과 심리상태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말하기 평가는 아니지만, 말하기 능력과 관련된 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로 국내에서 최근에 행해진 연구 세 편이 있다. 이들은 최근에 이슈가 된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Teaching English in English: TEE)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것들이다. 먼저 민찬규(2008)의 연구는 초등 교사 54명과 중등교사 63명을 대상으로 TEE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영어로 하는 수업의 횟수, 영어 사용 정도, 영어수업 형태, 영어수업에서 교사에게 필요한 능력, 교사의 영어 사용 능력, 영어수업에 대한 준비 정도, TEE의 장점에 대한 의견, TEE 수업의 염려사항, 영어수업에 대한 만족도, TEE 수업 형태의 적절성 등에 대한 의견을 설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그의 연구는 교사들이 TEE의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여건, 영어능력, 교수법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연구는 TEE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9년에 발표된 두 편의 논문도 모두 TEE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다루고 있는데, 임병빈과 전영주(2009)의 연구는 28명의 중등교사들을 대상으로 TEE에 대한 인식 문항들 5문항과 TEE 개선에 관한 4문항을 포함한 설문지로 조사를 하였다. 이들의 연구도 민찬규(2008)의 연구처럼 교사들이 TEE의 실행에 대해서는 찬동하나, 실제 시행은 고등학교 교사들보다 중학교에서 좀 더 많이 시행하고 있으며, 입시위주 교육, 교재연구시간, 영어구사능력 부족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맹은경(2009)은 91명의 초등교사와 1351명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TEE에 대한 인식을 설문 조사하였는데, 교사와 학생 모두 TEE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공감하고 있지만, TEE의 성격에 대해서는 교사들 사이, 학생들 사이에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교사들 중 45.6%는 TEE를 영어로만 하는 상호작용적 수업으로 인식하는 반면 비슷한 정도의 44.4%는 영어와 한국어를 혼합하여 상호작용적으로 수업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33%의 초등학생들은 TEE를 수업의 대부분에서 영어를 쓰되 가끔 한국어도 혼용하는 교사중심의 수업이라고 인식하였고, 31.9%의 학생들은 영어와 한국어를 혼용하는 교사-학생 의사소통적 수업으로 인식하였다.

한편 국가영어능력시험은 아직 개발단계여서 이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지만, 김현주(2009)가 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한 것이 발견된다. 그녀의 연구는 중등교사 57명, 중등학생 19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어)영역에 대한 인식, 새로 개발될 국가영어능력인증시험에 대한 인식, 새로 개발될 시험에 포함되기를 기대하는 영역들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국가영어능력인증시험이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가져다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31.6%의 교사와 35.9%의 학생들이 부정적인 견해

를 보였지만, 교수학습방법의 변화는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교사 50.9%, 학생 49.1%로, 새 시험의 환류효과를 예상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교사 혹은 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새로운 국가시험에 말하기/쓰기라는 새로운 영역이 포함되는 데서 오는 교사들의 인식과 심리적 부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가 계획되었다.

### Ⅲ. 연구 방법

연구 방법에서는 연구 대상, 연구 도구, 자료 수집 방법, 자료 분석 방법 등을 소개한다.

####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참여한 교사는 서울지역 중등학교 교사 138명이었다. 중학교 교사가 45명, 고등학교 교사가 89명, 기타 4명이었다. 그리고 남자 39명, 여자 89명이었다. 경력으로는 2년 이내 22명, 3-5년 27명, 6-9년 25명, 10년 이상이 64명이었다.

####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연구 도구는 설문지였다. 설문지는 배경정보에 관한 설문과 (1)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의 말하기 쓰기 평가와 관련한 설문 문항 7문항, (2)현재 본인이 교실에서의 말하기/쓰기 평가 시행 정도에 관한 문항 2문항, (3)말하기 평가 실시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한 문항 6문항, (4)쓰기 평가 실시에 대한 문제점 5문항, (5)영어 말하기/쓰기 평가의 윤리적/심리적 문제에 관한 문항 5문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6)국가 영어능력시험 말하기/쓰기 시험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에 건의사항을 쓰게 하였다. 일부 문항은 개방형으로 직접 응답을 쓰는 것이었지만, 대부분은 리커트 형식의 5점 양극척도 문항이었다(부록 참조).

#### 3.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방법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에서 시행하는 중등 영어교사 집중연수에 참여한 교사 2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였고, 두 번째 방법은 서울 시내의 임의의 학교에 설문지를 보내서 111명의 교사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집중연수에 참여한 교사들과 일반 학교에 있는 교사들의 태도가 다를 수도 있으나, 국가영어능력

시험은 아직 실시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에 관한 교사들의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는 판단으로 이 두 집단의 자료는 함께 처리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0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현황 파악의 연구이므로, 복잡한 추론적 통계가 아니라 단순한 기술통계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5점 척도의 값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척도가 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가장 좌측의 스케일에 1점, 가장 우측의 스케일에 5점을 부여하였다.

### IV. 결과 및 논의

본 장에서는 설문지에 제시된 문항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에 이에 대한 요약과 논의를 한다.

#### 1. 국가영어능력시험 말하기/쓰기 평가에 관한 인식

본 절에서는 말하기/쓰기 평가 도입에 대한 교사의 인지도, 찬반 의견, 교사의 부담의 정도, 장차 국가시험에 채점위원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 채점위원으로 참여할 때의 효과 등을 분석한다.

##### 1) 말하기/쓰기 평가 도입에 대한 인지도

국가영어능력시험 말하기/쓰기 평가에 관한 인식에 대한 첫 문항은 국가영어능력시험에 말하기/쓰기 평가가 도입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를 물었다. 5점 척도 상에서 좌측은 “전혀 모른다”, 우측은 “잘 알고 있다” 를 주었다.

교사들은 5점 척도 상에서 평균 3.5(표준편차 1.14)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 인지도가 별로 높지는 않았다. “전혀 모른다” 가 8명(5.8%), “거의 모른다” 가 17명(12.3%)으로, 전체의 18.1%의 교사들은 모른다는 응답을 한 것이다. 중간에 표시한 교사들이 42명(30.4%)이었다. “아는 편이다” 40명(29%), “잘 알고 있다” 31명(22.5%)을 합친 수는 전체 138명 중에서 71명(51.5%)으로 반을 약간 넘었다. 남자와 여자는 각각 3.49로 차이가 없었지만, 학교급별로는 역시 중학교 교사들이 평균 3.44(SD=1.04)로 고등학교 교사들의 평균 3.55(SD=1.21)보다 낮았다. 교사들의 교육경력에 따른 차이는 경력 3-5년 집단이 평균 3.22(SD=1.05)로 가장 모르고 있었고, 10년 이상된 교사 집단이 평균 3.59(SD=1.18)로 가장 잘 알고 있었다. 경력별로 나눈

집단의 응답은 표 1과 같다.

표 1

국가영어능력시험에 말하기/쓰기 평가 도입에 대한 인지도

교육 경력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중간	잘 아는 편이다	매우 잘 안다	평균	표준 편차	N
2년 이내	1(4.5)	3(13.6)	5(22.7)	9(40.9)	4(18.2)	3.55	1.101	22
3-5년	2(7.4)	3(11.1)	12(44.4)	7(25.9)	3(11.1)	3.22	1.050	27
6-9년	1(4)	4(16)	8(32)	5(20.0)	7(28)	3.52	1.194	25
10년 이상	4(6.3)	7(10.9)	17(26.6)	19(29.7)	17(26.6)	3.59	1.178	64
합계	8(5.8)	17(12.3)	42(30.4)	40(29)	31(22.5)	3.50	1.141	138

\* 괄호 안은 퍼센트를 나타냄.

## 2) 말하기/쓰기 시험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

두 번째 문항은 국가영어능력시험에 말하기/쓰기 시험을 도입하는데 대해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5점 척도로 물었다. 전체 교사의 응답은 평균 3.50(SD=1.24)로, 그리 높지 않았으나, 응답 형태를 보면 중간이 26명(19.%)으로 적은 반면 반대가 41명(22.7%)으로 상당수를 차지하였고, 찬성이 총 80명(58.4%)으로 반대의 두 배 정도 되었다. 따라서 교사들은 전반적으로 국가시험에 말하기/쓰기 평가가 도입되는데 대해 다수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녀별로는 여자의 평균이 3.56(SD=1.19)으로, 남자의 평균 3.32(SD=1.74)보다 높았고, 학교급별로 볼 때는 중학교 교사의 평균이 3.60(SD=1.17)으로 고등학교 교사의 평균 3.45(SD=1.28)보다 높았다. 한편 교육경력별로 보면 경력 2-5년 집단의 평균이 3.88(SD=1.11)로 가장 찬성률이 높았고, 경력 5-10년 집단이 평균 3.08(SD=1.32)로 가장 낮았다. 아래의 표 2에서 보듯이, 경력 5년 미만인 교사들의 찬성률이 높는데 비해, 그 이상의 경력 집단은 현저하게 낮다. 이는 최근에 임용된 교사들은 영어로 수업 시연을 하는 절차를 거쳐서 임용되었기 때문에 영어시험에 말하기/쓰기 평가의 도입에 대해 보다 자신감과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찬성이나 반대를 하는 교사들에게, 그 이유를 직접 쓰게 하였는데, 중요한 이유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괄호 속은 빈도).

### (1) 찬성하는 이유들

- 다양한 skill 평가로 객관적으로 타당성 확보 (6명)
- 실제적 영어능력평가 (5명)

- 말하기와 쓰기가 언어능력의 최종목표이기 때문 (3명)
- 읽기 위주 영어교육의 한계 극복, 실용 영어능력 신장 일조 (3명)
- 언어 학습 중에서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 여러 번 시험 칠 수 있는 기회 제공

(2) 반대하는 이유들

- 채점의 객관성, 현실성 (5명)
- 사교육에 미칠 영향 우려 (5명)
- 아직 학교현장에서 준비 미비, 지도 어려움 (3명)
- 시험 대비로 수업이 편중될 우려
- 점수를 얻는 시험으로, 원래 취지가 변질될 우려
- 기본 틀이 불분명
- 비용, 평가 주체의 전문성 부족

찬성하는 교사들은 말하기/쓰기 평가가 영어능력 평가의 타당성을 높여준다는 점을 주로 말하고 있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채점의 문제, 사교육의 영향, 현장 지도의 어려움을 들고 있다.

표 2

국가영어능력시험에 말하기/쓰기 시험이 도입되는데 대한 찬반 의견

교육 경력	반대	약간 반대	중간	약간 찬성	찬성	평균	표준 편차	N
2년 이내	0(0)	2(9.1)	5(22.7)	10(45.5)	5(22.7)	3.82	.907	22
3-5년	1(3.8)	3(11.5)	2(7.70)	12(46.2)	8(30.8)	3.88	1.107	26
6-9년	4(16)	4(16)	7(28)	6(24)	4(16)	3.08	1.320	25
10년 이상	7(10.9)	10(15.6)	12(18.8)	20(31.3)	15(23.4)	3.41	1.306	64
합계	12(8.8)	19(13.9)	26(19.0)	48(35.0)	32(23.4)	3.50	1.237	137

3) 영어 말하기/쓰기 시험 도입에 대해 교사가 느끼는 부담의 정도

국가영어능력시험에 말하기/쓰기 시험이 도입되는데 대해 교사들의 느끼는 심리적 부담의 정도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평균 3.54(SD=1.11)의 수치를 보였다. 약간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다. 부담을 전혀 안 느낀다는 교사가 8명(5.8%), 별로 안 느끼는 교사가 15명(10.9%)인 반면에 조금 부담을 느낀다는 교사가 49명(35.5%), 많은 부담을 느끼는 교사가 28명(20.3%)으로, 전체 응답 교사 137명 중에서 77명(55.3%)이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을 하였다.

남녀별로는 여자가 평균 3.61(SD=1.13)로 남자의 평균 3.36(SD=1.07)보다



조금 더 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심하다. 학교급별로 볼 때는 중학교 교사들(M=3.80, SD=1.01)이 고등학교 교사들(M=3.40, SD=1.16)보다 조금 더 부담을 느낀다고 하였다.

한편 경력별로 보면, 경력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p=0.032$ ). 가장 부담을 느끼는 집단은 경력 10년 이상의 집단(M=3.70, SD=1.09)이었고, 가장 부담을 덜 느끼는 집단은 경력 3-5년의 교사 집단(M=3.30, SD=1.03)이었다. 5년을 기점으로 그 이상의 교사들이 그 이하의 교사들보다 더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영어 말하기/쓰기 시험 도입에 대해 교사가 느끼는 부담의 정도

교육 경력	전혀 안 느낀다	별로 안 느낀다	중간	조금 느낀다	많이 느낀다	평균	표준 편차	N
2년 이내	0(0)	2(9.1)	5(22.7)	10(45.5)	5(22.7)	3.32	.894	22
3-5년	1(3.8)	3(11.5)	2(7.7)	12(46.2)	8(30.8)	3.30	1.103	26
6-9년	4(16)	4(16)	7(28)	6(24)	4(16)	3.60	1.323	25
10년 이상	7(10.9)	10(15.6)	12(18.8)	20(31.3)	15(23.4)	3.70	1.087	64
합계	12(8.8)	19(13.9)	26(19.0)	48(35.0)	32(23.4)	3.54	1.112	137

#### 4) 교실에서의 영어 말하기/쓰기 평가에 대한 교사의 지식/역량

교사들은 교실에서의 영어 말하기/쓰기 평가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먼저 말하기 평가에 대한 지식과 역량은 전체 교사의 평균이 3.39(SD=0.88)로 그리 높지 않았다. 남자교사들의 평균은 3.35(SD=0.79), 여자 교사들의 평균은 3.41(SD=0.93)로 별 차이가 없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교사들(M=3.58, SD=0.81)이 고등학교 교사들(M=3.28, SD=0.97)보다 조금 더 알고 있었다. 경력별로는 경력 2년 이내의 교사들이 가장 지식이 많다고 응답하였고(M=3.64, SD=0.73), 경력이 길어질수록 지식과 역량의 평균치가 낮아져서 10년 이상의 교사들이 가장 낮은 평균치를 보였다(M=3.33, SD=0.89).

한편 쓰기 평가에 대한 지식과 역량은 전체 교사의 평균이 말하기 평가에 대한 평균보다 낮아서 3.26(SD=0.97)에 불과하였다. 남자교사들(M=3.46, SD=0.84)이 여자교사들(M=3.19, SD=1.02)보다 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중학교 교사들(M=3.36, SD=0.96)이 고등학교 교사들(M=3.20, SD=0.99)보다 좀 더 알고 있다고 하였다. 경력별로는 경력 6-9년 집단이 3.04(SD=1.02)로 가장 낮았고, 나머지 집단은 3.36(2년 이내), 3.30(3-5년, 10년 이상)으로 비슷비슷하였다.

5) 장차의 국가영어능력시험 말하기/쓰기 평가에 채점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의사

교사들에게 장차 시행하는 국가영어능력시험 말하기/쓰기 평가의 채점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지를 물었는데, 전체의 평균이 2.81로 중간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치였다. 인원수로 보아도, “그렇지 않다”가 34명(24.8%), “약간 그렇지 않다”가 29명(17.5%)이어서, 합계 63명(46%)으로, “약간 그렇다” 29명(15.3%), “그렇다” 21명(15.3%)을 합친 50명(36.5%)보다 많았다. 남녀별로는 남자 교사들(M=2.75, SD=1.34)이 여자 교사들(M=2.83, SD= 1.22)보다 약간 부정적이었고, 학교급별로는 예상한 대로 중학교 교사들(M=2.67, SD=1.48)이 고등학교 교사들(M=2.89, SD=1.39)보다 조금 더 부정적이었다. 경력별로는 꽤 차이가 있었는데, 경력이 짧을수록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했고, 길수록 부정적이었다. 표 4는 경력별 참여의사의 분포와 평균을 보여준다.

**표 4**  
국가영어능력시험 말하기/쓰기 시험 평가 채점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의사

교육 경력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중간	약간 그렇다	그렇다	평균	표준 편차	N
2년 이내	1(4.5)	3(13.6)	7(31.8)	7(31.8)	4(18.2)	3.45	1.101	22
3-5년	5(18.5)	4(14.8)	5(18.5)	8(29.6)	5(18.5)	3.15	1.406	27
6-9년	4(16)	7(28)	5(20)	6(24)	3(12)	2.88	1.301	25
10년 이상	24 (38.1)	15(23.8)	7(11.1)	8(12.7)	9(14.3)	2.41	1.466	63
계	34 (24.8)	29 (21.2)	24 (17.5)	29 (21.2)	21 (15.3)	2.81	1.417	137

6) 국가영어능력시험 말하기/쓰기 평가의 채점위원으로 참여할 때 교육에 주는 도움

교사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가영어능력시험 말하기/쓰기 평가의 채점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으나, 그런 역할로 참여를 한다면 학생들을 교육할 때에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점을 인정하고는 있었다. 전체 교사들의 평균이 4.10(SD=0.98)으로 상당히 높았으며, 인원수도 부정적인 인원 9명(6.7%)에 비해 긍정적인 인원이 103명(76.9%)으로 압도적이었다. 그 유용성에 대한 인식은 남자 교사들(M=4.08, SD=0.97)과 여자 교사들(M=4.10, SD=0.99)간에 차이가 없었다. 중학교 교사들(M=3.95, SD=1.08)에

비해 고등학교 교사들( $M=4.17$ ,  $SD=0.94$ )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았다. 경력별로는 경력 10년 이상의 교사 집단( $M=3.93$ ,  $SD=1.09$ )이 가장 소극적인 평가를 하였고, 다른 집단은 4.23(경력 2년 이내, 3-5년), 4.24(경력 6-9년)로 거의 같았다.

교사들이 평가에 채점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소극적이지만, 채점위원으로 참여하면 자신들의 교육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은 앞으로 교사 참여 유도에 참고를 하여야 할 결과이다.

## 2. 현재 교실에서의 말하기/쓰기 평가의 시행 정도

현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말하기/쓰기 평가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의 평가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그동안 수행평가(performance)를 시행하도록 권장, 지도하여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말하기/쓰기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 속에 이에 대한 실시 여부를 물어보았다.

### 1) 말하기 평가의 시행 정도

교사들은 현재 말하기 평가를 별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거의 매시간 시행한다는 응답이 9명(6.5%)인 반면에 거의 시행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8명(34.8%)이나 되었다. 나머지는 가끔 시행한다고 하였으나, 이것도 학기당 1-2회 정도가 가장 많았다. 학교급별로는 차이가 있었는데, 중학교에서는 거의 않는다는 응답이 0이었으나 고등학교에서는 전체 89명 중 46명으로 51.7%를 차지하였다. 경력별로 볼 때는 거의 않는다는 교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경력 3-5년 집단(44.4%)이었고, 2년 이내의 집단(13.6%)이 가장 낮았다.

### 2) 쓰기 평가의 시행 정도

쓰기 평가는 말하기 평가보다도 더 시행 정도가 낮았다. 전체 교사 중에서 매시간 쓰기 평가를 한다고 응답한 교사는 7명(5.1%)이었고, 거의 않는다는 교사가 70명(50.7%)으로 반을 넘었다. 거의 않는 교사의 비율은 남자교사 집단(62.2%)이 여자교사 집단(46.5%)보다 높았고, 고등학교 집단(61.8%)이 중학교 집단(28.9%)보다 훨씬 더 높았다. 경력별로 본다면 말하기 평가와 마찬가지로 경력 3-5년 집단(59.3%)에서 거의 않는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2년 이내의 집단(45.5%)에서 가장 낮았다.

## 3. 말하기/쓰기 평가 실시에 대한 문제점

교사들이 말하기/쓰기 평가를 별로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말하기/쓰기 평가의 실시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한 교사의 생각을 알아보았다.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그 문제점의 심각성에 대해 “문제 안 됨”(1점)에서 “매우 심각”(5점)에 이르는 척도에 표시하게 하였다.

#### 1) 교사의 말하기 능력 부족

교사들은 자신의 말하기 능력 부족이 말하기 평가의 실시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전체 교사의 평균이 2.63(SD=0.99)으로 중간치인 3을 밑돌았고, 인원수로 볼 때도 문제가 안 된다는 교사가 67명(48.9%)으로, 문제가 된다는 쪽 29명(21.2%)보다 훨씬 많았다. 학교급별로 볼 때는 중학교 교사들(M=2.36, SD=0.88)이 고등학교 교사들(M=2.77, SD=1.03)보다 문제가 적다고 보았다. 경력 상으로는 2년 이내의 교사들(M=2.27, SD=0.88)이 가장 문제가 안 된다고 보았고, 10년 이상의 교사들(M=2.83, SD=1.05)이 상대적으로 더 문제가 된다고 보았으나,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지는 않았다.

#### 2) 말하기/쓰기 시험 문항 작성 능력 부족

말하기/쓰기 시험 문항 작성 능력 부족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말하기 시험 문항 작성 능력 부족이 문제가 된다는 문항에 대해서 전체 평균이 2.53(SD=1.01)으로 낮았고, 문제가 안 된다는 교사가 70명(51.1%)으로, 중간 44명(32.1%)이나 문제가 된다는 교사 23명(16.8%)보다 많았다. 여자 교사들의 평균(M=2.45, SD=1.03)이 남자 교사들의 평균(M=2.70, SD=0.93)보다 낮았고, 중학교 교사들의 평균(M=2.31, SD=0.82)이 고등학교 교사들의 평균(M=2.64, SD=1.09)보다 낮아서 문제가 적다고 응답하였다. 경력 상으로는 2년 이내의 교사들(M=2.36, SD=0.85)이 가장 문제가 안 된다고 보았고, 경력이 많을수록 평균치가 높아져서 10년 이상의 교사들(M=2.65, SD=0.99)이 제일 높았다.

쓰기 시험 문항 작성 능력 부족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전체 평균이 2.50(SD=1.02)이어서, 말하기에 대한 평균보다 조금 낮았다. 남자 교사들의 평균(M=2.46, SD=0.90)이 여자 교사들의 평균(M=2.50, SD=1.07)보다 조금 낮았고, 고등학교 교사들의 평균(M=2.46, SD=1.08)이 중학교 교사들의 평균(M=2.57, SD=0.95)보다 낮았다. 경력 상으로 볼 때 응답의 유형은 말하기 시험에 대한 문항의 응답 유형과 비슷하여, 경력 2년 이내의 교사들(M=2.23, SD=0.87)이 가장 문제가 안 된다고 응답하였고, 경력이 많을수록 평균치가 높아졌다. 표 5는 말하기/쓰기 시험의 문항 작성 능력 부족이 문제

가 되는지를 묻은 설문에 대한 경력별 응답 유형이다.

표 5

말하기/쓰기 시험 문항 작성 능력 부족이 문제가 되는 정도(S=Speaking; W=Writing)

교육 경력	S/W	문제 안 됨	조금 문제	중간	심각한 편	매우 심각	평균	표준 편차	N
2년 이내	S	3(13.6)	10(45.5)	7(31.8)	2(9.1)	0(0)	2.36	.848	22
	W	4(18.2)	9(40.9)	9(40.9)	0(0)	0(0)	2.23	.752	22
3-5 년	S	4(14.8)	12(44.4)	8(29.6)	1(3.7)	2(7.4)	2.44	1.050	27
	W	4(15.4)	7(26.9)	10(38.5)	4(15.4)	1(3.8)	2.65	1.056	26
6-9 년	S	6(24)	7(28)	7(28)	4(16)	1(4.0)	2.48	1.159	25
	W	5(20.8)	7(29.2)	4(16.7)	7(29.2)	1(4.2)	2.67	1.239	24
10년 이상	S	8(12.7)	20(31.7)	22(34.9)	12 (19.0)	1(1.6)	2.65	.986	63
	W	9(14.3)	19(30.2)	21(33.3)	11 (17.5)	3(4.8)	2.68	1.075	63
계	S	21 (15.3)	49(35.8)	44(32.1)	19 (13.9)	4(2.9)	2.53	1.008	137
	W	22 (16.3)	42(31.1)	44(32.6)	22 (16.3)	5(3.7)	2.60	1.059	135

### 3) 평가 척도(스케일) 작성 능력 부족

교사들은 말하기/쓰기 시험의 평가 척도(스케일) 작성 능력의 부족이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말하기 시험의 경우, 전체 평균은 2.77(SD=1.05)로, 중간보다 낮았다. 인원수로 볼 때도, 문제가 안 된다는 쪽이 총 54명(39.1%)으로, 문제가 된다는 쪽 30명(21.7%)보다 많았다. 여자 교사들(M=2.72, SD=1.11)이 남자 교사들(M=2.86, SD=0.86)보다 조금 덜 문제로 인식하였고, 중학교 교사들(M=2.56, SD=0.87)이 고등학교 교사들(M=2.89, SD=1.13)보다 문제점 인식 정도가 낮았다. 경력 상으로는 2년 이내의 교사들(M=2.50, SD=0.86)이 가장 덜 문제가 된다고 하였고, 6-9년 경력의 교사들(M=2.92, SD=1.26)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쓰기 시험의 경우도 말하기 시험과 마찬가지로 평가 척도(스케일) 작성 능력 부족이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았다. 전체 평균은 2.60(SD=1.06)이었는데, 남자 교사들의 평균(M=2.54, SD=0.96)이 여자 교사들의 평균(M=2.61, SD=1.10)보다 낮았고, 중학교 교사들의 평균(M=2.55, SD=0.95)이 고등학교 교사들의 평균(M=2.53, SD=1.13)보다 낮았다. 경력 상으로 볼 때는 2년 이내의 교사들의 평균(M=2.23, SD=0.72)이 가장 낮아서 문제가 안 된다고 보았고, 경력이 많을수록 차츰 높아져서 10년 이상 경력에서 가장 높았다(M=2.68, SD=1.08). 표 6은 말하기/쓰기 평가 척도(스케일) 작성 능력 부족

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응답표이다.

표 6

말하기/쓰기 평가 척도 작성 능력 부족이 문제가 되는 정도(S=Speaking; W=Writing)

교육 경력	S W	문제 안 됨	조금 문제	중간	심각한 편	매우 심각	평균	표준 편차	N
2년 이내	S	3(13.6)	7(31.8)	10(45.5)	2(9.1)	0(0)	2.50	.859	22
	W	4(18.2)	9(40.9)	9(40.9)	0(0)	0(0)	2.23	.752	22
3-5 년	S	3(11.1)	7(25.9)	10(37)	5(18.5)	2(7.4)	2.85	1.099	27
	W	4(15.4)	7(26.9)	10(38.5)	4(15.4)	1(3.8)	2.65	1.056	26
6-9 년	S	3(12)	8(32)	5(20)	6(24)	3(12)	2.92	1.256	25
	W	5(20.8)	7(29.2)	4(16.7)	7(29.2)	1(4.2)	2.67	1.239	24
1년 이상	S	7(11.1)	16(25.4)	28(44.4)	9(14.3)	3(4.8)	2.76	.995	63
	W	9(14.3)	19(30.2)	21(33.3)	11 (17.5)	3(4.8)	2.68	1.075	63
계	S	16 (11.7)	38(27.7)	53(38.7)	22 (16.1)	8(5.8)	2.77	1.045	137
	W	22 (16.3)	42(31.1)	44(32.6)	22 (16.3)	5(3.7)	2.60	1.059	135

4) 실력을 실제 판정할 때의 애매함

교사들은 말하기/쓰기 시험 문항이나 척도 작성 능력 부족은 자신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반면 학생들의 실력을 실제로 판정할 때의 애매함이 문제가 된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었다. 말하기의 경우, 전체 평균은 3.45(SD=1.11)로 높은 편이었고, 문제가 심각한 쪽으로 응답한 교사들의 수가 74명(54%)으로, 안 된다는 쪽의 수 30명(21.9%)보다 두 배 반 가까이 많았다. 남자 교사들(M=3.49)과 여자 교사들(M=3.45)간이나, 학교급별(중 3.40, 고 3.50)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 경력별로는 3-5년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 10년 이상의 집단에서 가장 낮았다(표 7 참조).

쓰기 시험의 경우는 말하기 시험 보다는 문제점을 조금 덜 느끼는 듯하였다. 전체 평균이 3.21(SD=1.12)로 중간에 가깝고, 인원수로 볼 때도 심각한 쪽의 인원이 59명(42.7%)인데, 문제가 안 된다는 쪽도 42명(31.1%)이나 되었다. 남자 교사들(M=3.03, SD=1.12)이 여자 교사들(M=3.29, SD=1.11)보다 평균이 낮았다. 학교급별간에는 거의 3.20(중), 3.22(고)로 거의 비슷하였다. 경력별로 볼 때도 큰 차이는 없었다(표 7 참조).

표 7

실력을 실제 관정할 때의 애매함이 문제가 되는 정도(S=Speaking; W=Writing)

교육 경력	S W	문제 안 됨	조금 문제	중간	심각한 편	매우 심각	평균	표준 편차	N
2년 이내	S	0(0)	4(18.2)	5(22.7)	13(59.1)	0(0)	3.41	.796	22
	W	0(0)	7(31.8)	8(36.4)	7(31.8)	0(0)	3.00	.816	22
3-5 년	S	1(3.7)	2(7.4)	7(25.9)	9(33.3)	8(29.6)	3.78	1.086	27
	W	1(3.8)	4(15.4)	8(30.8)	7(26.9)	6(23.1)	3.50	1.140	26
6-9 년	S	1(4)	6(24)	3(12)	9(36)	6(24)	3.52	1.229	25
	W	1(4.2)	7(29.2)	4(16.7)	9(37.5)	3(12.5)	3.25	1.152	24
10년 이상	S	4(6.3)	12(19.0)	18(28.6)	19(30.2)	10(15.9)	3.30	1.145	63
	W	4(6.3)	18(28.6)	14(22.2)	18(28.6)	9(14.3)	3.16	1.181	63
계	S	6(4.4)	24(17.5)	33(24.1)	50(36.5)	24(17.5)	3.45	1.105	137
	W	6(4.4)	36(26.7)	34(25.2)	41(30.4)	18(13.3)	3.21	1.116	135

## 5) 학생이 많아 면접/채점 시간이 부족

교사들이 교실에서 말하기/쓰기 시험을 시행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학생이 많아서 말하기 평가를 위한 면접 시간 부족, 쓰기 평가를 위한 채점 시간 부족하다는 점이었다. 말하기 시험의 경우 면접시간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본 교사들의 전체 평균은 4.07(SD=0.994)이었고, 쓰기 시험에서 채점 시간 부족이 문제가 된다고 본 교사들의 전체 평균은 4.12(SD=1.03)로 상당히 높았다. 말하기 경우, 남녀 교사들은 각각 4.27, 4.01의 평균을 보였고, 중학교 교사들은 3.84(SD=1.04)인데 비해 고등학교 교사들은 4.20(SD=0.95)으로 상당히 심학한 문제로 인식하였다. 경력별로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6-9년 경력의 교사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표 8 참조).

표 8

학생이 많아 면접/채점 시간이 부족한 것이 문제인 정도(S=Speaking; W=Writing)

교육 경력	S W	문제 안 됨	조금 문제	중간	심각한 편	매우 심각	평균	SD	N
2년 이내	S	1(4.5)	0(0)	4(18.2)	11(50)	6(27.3)	3.95	.950	22
	W	0(0)	1(4.5)	7(31.8)	6(27.3)	8(36.4)	3.95	.950	22
3-5 년	S	0(0)	1(3.7)	6(22.2)	9(33.3)	11(40.7)	4.11	.892	27
	W	0(0)	0(0)	5(19.2)	6(23.1)	15(57.7)	4.38	.804	26
6-9 년	S	1(4)	1(4)	2(8)	8(32)	13(52)	4.24	1.052	25
	W	1(4.2)	2(8.3)	1(4.2)	7(29.2)	13(54.2)	4.21	1.141	24
10년 이상	S	1(1.6)	5(7.9)	12(19)	19(30.2)	26(41.3)	4.02	1.039	63
	W	1(1.6)	6(9.7)	11(17.7)	16(25.8)	28(45.2)	4.03	1.086	62
계	S	3(2.2)	7(5.1)	24(17.5)	47(34.3)	50(40.9)	4.07	.994	137
	W	2(1.5)	9(6.7)	24(17.9)	35(26.1)	64(47.8)	4.12	1.026	134

쓰기 시험의 경우, 남자 교사들(M=4.35, SD=0.92)이 여자 교사들(M=4.05,

SD=1.45)보다 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4.12, 고등학교 4.13으로 비슷하였다. 경력별로 볼 때는 3-5년 경력의 집단에서 가장 높은 평균(M=4.38, SD=0.80)을 보여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았고, 2년 이내의 집단에서 제일 낮은 평균을 보였다(표 8 참조).

#### 6) 말하기/쓰기 평가에 대한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들

교사들에게 폐쇄형 설문 이외에, 말하기/쓰기 평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쓰게 하였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다음은 이들을 정리한 것이다.

##### (1) 말하기 평가에 관련된 문제점

- 평가 결과에 대한 비신뢰, 항의 등 (7명)
- 평가의 객관성 확보 장치 미흡 (3명)
- 잡다한 업무량과 학생수 과다로 인한 시간부족 (3명)
- 사교육 증가 / 교육기회의 불균등 문제 등 (3명)
- 교사의 역량 및 교수법, 교사 연수가 선행되어야 함 (2명)
- 학생 개개인 기본적 역량 차이에 대한 고려
- 본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우기는 경우도 있어 모든 학생을 평가할 때 녹음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 제대로 평가의 기반도 안 닦인 상태에서 자꾸 요구만 한다.
-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에서 말하기 평가?
- 거의 모든 학교에 원어민이 있으므로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함

위의 의견 제시 중에서 마지막 의견을 제시한 교사는, 말하기/쓰기 평가를 원어민 교사만 실시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에서 말하기 평가를 하는데 대한 의문을 제기한 교사는 장차 국가영어능력시험이 대학 입시를 대체한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듯하다.

##### (2) 쓰기 평가에 관련된 문제점

- 평가문항 객관성, 공정성 확보, 학부모의 의의 제기 (4명)
- 업무 과다로 인한 시간 부족, 수업 및 평가의 질 저하 (4명)
- 교사의 완벽한 영어 능력부족으로 인한 판정 오류나 애매한 판정 (2명)
- 학생들의 낮은 실력으로 쓰기평가를 실제로 반영하기 어려움 (2명)
- 중학교 때부터 체계적인 쓰기 교육이 안 됨
-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전혀 생소함
- 사교육 없이 수업 내용만으로 시험 과정 구성이 어려움



- 쓰기 수업을 원어민에게서 들어보니 logic, structure만 다루고, nuance는 못 다룸

쓰기 평가에 대해서도 말하기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객관성, 공정성 확보가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고, 업무 과다로 인한 시간 부족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다. 마지막 의견을 제시한 교사는 쓰기 지도와 평가를 원어민에게 의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 4. 영어 말하기/쓰기 평가의 윤리적/심리적 문제

영어 말하기/쓰기 평가는 주관적인 평가이므로, 평가를 받는 학생이 느끼는 시험불안(test anxiety)은 말할 것도 없고, 평가자인 교사도 윤리적,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된다. 윤리적 문제는 교사가 자신의 평가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이 학생들에게 공정하게 인식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심리적 문제와 연결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 1) 영어 말하기/쓰기의 교사 판정이 학생들이 학업 동기에 미치는 영향

교사들은 말하기/쓰기 평가에서 자신의 판정이 학생들의 학업 동기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영향이 “없다”(1점)에서 “매우 크다”(5점)에 이르는 척도에서 평균 3.78(SD=0.92)의 높은 반응을 보였다. 남자 교사들(M=3.86, SD=0.92)의 평균이 여자 교사들(M=3.76, SD=0.92)의 평균보다 약간 높았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사들의 평균(M=3.87, SD=0.93)이 중학교 교사들의 평균(M=3.64, SD=0.91)보다 약간 높았다. 경력별로는 3-5년 집단의 평균이 가장 높고, 2년 이내 집단이 가장 낮았다(표 9 참조).

표 9

영어 말하기/쓰기 평가에서 교사의 판정이 학생들의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 정도

교육 경력	없다	거의 없다	중간	큰 편이다	매우 크다	평균	표준 편차	N
2년 이내	0(0)	5(22.7)	2(9.1)	12(54.5)	3(13.6)	3.59	1.008	22
3-5년	0(0)	1(3.7)	7(25.9)	13(48.1)	6(22.2)	3.89	.801	27
6-9년	1(4.2)	2(8.3)	3(12.5)	13(54.2)	5(20.8)	3.79	1.021	24
10년 이상	3(4.8)	2(3.2)	10(15.9)	38(60.3)	10(15.9)	3.79	.919	63
계	4(2.9)	10(7.4)	22(16.2)	76(55.9)	24(17.6)	3.78	.924	136

##### 2) 영어 말하기/쓰기 평가에서 교사의 판정이 학생들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

교사들은 영어 말하기/쓰기 평가에서 내리는 자신의 판정이 학생들의 장래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체 평균은 5점 척도에서 3.74(SD=0.85)였는데,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인원수로 볼 때도 영향이 있다는 쪽에 표시한 교사가 총 93명(78.3%)이나 되었고 없다고 한 교사는 11명(7.9%)에 불과하였다. 남녀 간에는 각각의 평균이 3.73(SD=0.90), 3.77(SD=0.82)로 차이가 없었고,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 교사들(M=3.83, SD=0.84)의 평균이 중학교 교사들(M=3.60, SD=0.86)의 평균보다 조금 높았으나 통계적인 의미는 없었다. 경력별로도 큰 차이가 없었는데, 10년 이상 집단의 평균이 3.79(SD=0.83)이었고, 2년 이내 집단의 평균이 3.64(SD=0.90)로 가장 낮았다.

### 3) 인터뷰형식의 영어 말하기 평가 시에 학생들의 심리적 불안에 대한 교사의 관심

많은 교사들이 인터뷰 형식의 영어 말하기 평가를 할 때, 학생들이 느끼는 심리적 불안에 대해 신경을 쓴다고 응답하였다. 전체 136명의 응답자 중 92명(67.6%)이 약간 혹은 매우 신경을 쓴다고 응답하였고, 9명(6.6%)이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남녀 간에는 각각 3.78과 3.79로 차이가 없었고 학교 급간에도 3.78(중)과 3.80(고)으로 차이가 없었다. 경력별로는 2년 이내의 집단에서 가장 높은 평균인 3.91(SD=0.75)이었고, 경력이 많아질수록 낮아져서 10년 이상 집단에서는 평균이 3.75(SD=0.86)이었다.

### 4) 영어 말하기/쓰기 평가에서 판정을 하는 순간 교사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

영어 교사들은 말하기/쓰기 평가에서 판정을 하는 순간에 상당한 수준의 심리적 부담을 느낀다고 답하였다. 말하기 시험의 경우, 전체 평균은 5점 척도 상에서 3.66(SD=0.97)이었고, 남녀 간에는 남(3.73)과 여(3.63)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학교 급간에는 고등학교 교사들(M=3.72, SD=0.90)이 중학교 교사들(M=3.58, SD=1.10)보다 더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경력별로는 2년 이내 집단과 3-5년 집단이 모두 3.41로 낮았으며, 6-9년 집단이 3.9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10 참조).

쓰기 평가 시 판정을 하는 순간에 느끼는 부담은 말하기 평가 시에 느끼는 부담보다는 조금 낮았는데, 전체 평균이 5점 척도 상에서 3.48(SD=1.03)이었다. 이는 말하기 평가 시에는 즉석에서 판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쓰기 평가 시에는 시간 여유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쓰기 자료를 읽으면서 채점을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남녀 간에는 3.32(남)와 3.53(여)으로 여자교사가 좀 더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하였고, 학교 급간에는 3.33(중)과

3.56(고)으로 고등학교 교사들이 좀 더 부담을 느낀다고 하였다. 경력별로 본 반응 유형은 말하기 평가 시에 느끼는 부담의 유형과 비슷하였는데, 2년 이내 집단이 3.09(SD=0.97)로 가장 낮았고, 6-9년 집단이 3.88(SD=0.95)로 가장 높았다(표 10 참조).

표 10

영어 말하기/쓰기 평가에서 판정 시에 느끼는 교사들의 심리적 부담 정도

(S=Speaking; W=Writing)

교육 경력	S / W	부담 전무	부담 별무	중간	약간 부담	매우 부담	평균	표준 편차	N
2년 이내	S	1(4.5)	1(4.5)	8(36.4)	12(54.5)	0(0)	3.41	.796	22
	W	1(4.5)	5(22.7)	8(36.4)	7(31.8)	1(4.5)	3.09	.971	22
3-5 년	S	2(7.4)	2(7.4)	9(33.3)	11(40.7)	3(11.1)	3.41	1.047	27
	W	2(7.4)	2(7.4)	10(37)	11(40.7)	2(7.4)	3.33	1.000	27
6-9 년	S	1(4.2)	0(0)	3(12.5)	16(66.7)	4(16.7)	3.92	.830	24
	W	1(4.2)	1(4.2)	3(12.5)	14(58.3)	11(17.5)	3.88	.947	24
10년 이상	S	3(4.8)	3(4.8)	13 (22.2)	29(46)	14(22.2)	3.76	1.011	63
	W	3(4.8)	6(9.5)	20 (31.7)	23(36.5)	11(17.5)	3.52	1.045	63
계	S	7(5.1)	6(4.4)	34(25)	68(50)	21(15.4)	3.66	.968	136
	W	7(5.1)	14 (10.3)	41 (30.1)	55(40.4)	19(14)	3.48	1.025	136

## 5. 국가영어능력시험 말하기/쓰기 평가 도입과 관련한 교사들의 건의

마지막으로 교사들에게 국가영어능력시험 말하기/쓰기 평가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쓰도록 하였다. 교사들은 다양한 건의를 하였는데, 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현장 상황 고려 및 여건 조성(시간부족, 업무과다, 교사 연수 및 학생 수준)(8명)
- 시간을 갖고(최소 2년) 천천히 준비해서 시행하기를(4명)
- 수준 및 확실한 평가 Guide Line을 설정해야 함(4명)
- 대국민적인 토론회로 국민, 교사, 학부모의 공감대 이뤄진 후 실시했으면(2명)
-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 되도록(2명)
- 정확하고 타당성 있게, 그리고 실제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2명)

-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말하기, 쓰기 연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빨리 시행하기 바람

## 6. 결과의 논의

본 연구는 정부에서 개발하고 있는 국가영어능력시험에 말하기/쓰기 평가가 도입되는 것과 관련하여 중등교사들의 인식과 심리적 부담에 대해 알아보는 연구이다. 먼저 국가영어능력시험에 말하기/쓰기 시험이 도입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지도에서는 다수의 교사들이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었다. 국가영어능력시험에 대해서 반 정도의 교사들이 잘 아는 편이거나 매우 잘 안다고 응답을 한 반면 모른다는 응답은 18% 정도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사들이 자신의 교육에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교사들은 또한 국가영어능력시험에 말하기/쓰기 평가가 도입되는데 대해서도 58.4%가 찬성의 의견을 보였는데, 반대도 22.7%나 되어서 상당한 정도의 반대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다양한 skill 평가가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의견과 실제적인 영어능력을 평가한다는 점을 들었고, 반대하는 이유로는 채점의 객관성, 현실성, 사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교사들은 말하기/쓰기 평가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시행상의 어려움에 유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들은 말하기/쓰기 시험이 도입되는데 대해 56.2%가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교사들은 학교 교실에서 말하기/쓰기 평가에 대한 지식이 별로 많지 않다고 인정하고 있다. 특히 교육경력이 많은 교사들이 적은 교사들보다 더 심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와 같은 지식 부족 때문인지, 교사 자신이 국가영어능력시험 말하기/쓰기 평가 채점위원으로 참여하는데 대해서는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비록 그렇게 참여하면 자신의 교육에는 도움을 주리라는 데 대해서는 크게 동의를 하고 있지만, 직접 참여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이다.

한편 교사 자신이 교실에서 말하기/쓰기 평가를 시행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교사가 거의 시행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현재의 교실환경에서는 말하기/쓰기 평가가 별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대학입시 유형으로는 교실에서의 말하기/쓰기 평가에 대한 환류효과(washback)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말하기/쓰기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교사들은 말하기시험에서 자신의 말하기 능력부족은 크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말하기/쓰기 시험의 문항작성능력 부족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마찬가지로 평가척도(스케일) 작성 능력 부족도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 자

신이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또 설령 그런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말하기/쓰기 평가를 함에 있어서 큰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경력이 많은 교사들이 적은 교사들보다는 문제점을 더 느낀다고 응답한 부분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비해서 교사가 좀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부분은 실제로 학생들의 실력을 판정할 때의 애매함과, 시간이 부족하여 학생들을 충분히 면접하거나 쓰기 평가 채점에 시간을 낼 수 없다는 부분이었다. 이중에서 실제 판정 시의 애매함에 대한 어려움은 앞으로 보다 자세한 평가척도와 해설을 통해 교사를 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가리킨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한 부분도 평소의 평가 방법을 잘 활용하도록 하고, 필요한 자료와 지원 방법을 강구함으로써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개방형 설문에서 교사들이 제시한 문제점으로는 평가결과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비신뢰의 문제, 사교육의 증가 등이 있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정부가 더욱 유념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교사들은 영어 말하기/쓰기 평가에 따른 윤리적/심리적 문제에도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교사들은 자신들의 판정이 학생들의 학업 동기와 장래 진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인터뷰와 같은 말하기 평가 시에 느끼는 학생들의 심리적 불안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쓴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따라서 말하기/쓰기 평가에서 판정을 하는 순간에 심리적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하였다. 이 부담은 쓰기 평가에서보다 말하기 평가에서 더 많이 느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사들에게 국가영어능력시험의 말하기/쓰기 평가 도입이 가져올 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 특히 중학교 교사보다는 고등학교 교사가 더 부담을 느끼고, 교육경력이 많을수록 더 심하게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국가영어능력시험 개발과 시행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와 대책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 V. 결론

지금까지 국가영어능력시험의 말하기/쓰기 평가 도입과 관련하여 서울시내의 중등학교 교사들이 느끼는 인지도, 인식, 심리적 부담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교사들은 대체적으로 말하기/쓰기 시험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었지만, 문제점들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었고,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국가영어능력시험의 2급과 3급은 고등학교 수준의 시험이면서, 장차 대학입시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어서 학교 현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교사들이 이런 시험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앞으로 시험 개발과 시행에 있어서 교사들을 위한 충분한 사전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시험의 신뢰성, 공정성 확보 부분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이 서울시내에 있는 중등학교 교사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전국의 교사들에게로 일반화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서울지역의 교사들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교사 수준보다 높다고 볼 때, 서울 지역의 교사들이 느끼는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타 지역의 교사들은 더 심하게 느낄 수 있으리라는 점에서 중요한 지표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전국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교사양성기관과 재교육기관에서 교사들에게 영어평가에 대한 훈련을 할 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며, 시험을 설계하고 준비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좀 더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현주. (2009). 국가영어능력 인증시험에 대한 선행조사연구. *Modern English Education*, 10(2), 44-59.
- 맹은경. (2009).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에 대한 초등교사 및 학생들의 인식 조사. *현대영어교육*, 10(1), 177-205.
- 민찬규. (2008).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에 대한 교사 의식 조사. *영어교육연구*, 20(2), 167-190.
- 임병빈, & 전영주. (2009). 영어로 진행되는 영어수업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조사. *영어어문교육*, 15(1), 299-325.
- Bachman, L. F. (2000). Modern language testing at the turn of the century: Assuring that what we count counts. *Language Testing*, 17(1), 1-42.
- Davies, A. (1997a). Introduction: The limits of ethics in language testing. *Language Testing*, 14(3), 235-241.
- Davies, A. (1997b). Demands of being professional in language testing. *Language Testing*, 14(3), 328-339.
- Jeon, B. M., Park, J. E., Ahn, B. K., Oh, J., Yu, J. M., Lee, S., & Kim, S. H. (2005). A study on improving English teachers' competence in student assessment. *English Teaching*, 60(2), 3-27.
- Kwon, O., Yoshida, K., Watanabe, Y., Negishi, M., & Naganuma, N. (2004). A comparison of English proficiency of Korean, Japanese and Chinese high school students. *English Teaching*, 59(4), 1-23.
- Stansfield, C. W. (1993). Ethics, standards and professionalism in language testing. *Issues in Applied Linguistics*, 4(2), 15-30.

## 부록

## 영어 말하기/쓰기평가에 관한 설문지 (2010)

선생님께,

안녕하십니까? 정부는 2012년부터 시행하려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에서 말하기, 쓰기 시험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2-3급 시험은 고등학교 수준의 시험으로, 대학 입시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중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영어 말하기/쓰기 평가에 관한 현실과 선생님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 조사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설문에 솔직한 답변과 좋은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의 영어평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무기명이며, 결과는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I. 배경 설문: 해당하는 곳에 V 표를 하여 주십시오.

1. 성별: 남\_\_\_ 여\_\_\_
2. 학교 급: 중학교\_\_\_ 고등학교\_\_\_ 기타(기입)\_\_\_\_\_
3. 학교 소재지: 서울\_\_\_ 대도시\_\_\_ 중소도시\_\_\_ 군 지역\_\_\_ 읍면지역\_\_\_ 기타\_\_\_
4. 교사 경력: 2년 이내 \_\_\_ 3-5년\_\_\_ 6-9년\_\_\_ 10년 이상\_\_\_
5. 졸업 학과 (0표): 영어교육과/영문과/타학과 학위(0표): 학사/석사/박사

### II. 설문 내용

#### 1. 장차의 국가영어능력평가 시험의 말하기/쓰기 평가와 관련하여

- 1) 선생님은 국가영어능력시험에 말하기/쓰기 평가가 도입된다는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른다 : \_\_\_ : \_\_\_ : \_\_\_ : \_\_\_ : \_\_\_ : 잘 알고 있다.
- 2) 국가영어능력시험에 말하기/쓰기 평가 도입에 대해?  
반대한다 : \_\_\_ : \_\_\_ : \_\_\_ : \_\_\_ : \_\_\_ : 찬성한다
- 3) 반대/찬성할 경우, 중요한 이유 한 가지만 쓰다면?\_\_\_\_\_
- 4) 국가시험에서의 영어 말하기/쓰기 시험 도입에 대해 선생님께서 느끼는 부담의 정도:  
전혀 부담을 안 느낀다 : \_\_\_ : \_\_\_ : \_\_\_ : \_\_\_ : \_\_\_ : 많은 부담을 느낀다.
- 5) 학교교실에서의 영어 말하기(speaking) 평가에 대한 선생님의 지식/역량:  
전혀 모른다 : \_\_\_ : \_\_\_ : \_\_\_ : \_\_\_ : \_\_\_ : 자세히 잘 안다
- 6) 학교교실에서의 영어 쓰기(writing) 평가에 대한 선생님의 지식/역량:  
전혀 모른다 : \_\_\_ : \_\_\_ : \_\_\_ : \_\_\_ : \_\_\_ : 자세히 잘 안다
- 7) 앞으로 국가영어능력시험 말하기/쓰기 채점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지요?

그렇지 않다 : \_\_ : \_\_ : \_\_ : \_\_ : \_\_ : 그렇다

- 8) 국가영어능력시험 말하기/쓰기 채점위원으로 참여하면 학생들을 교육할 때에:  
 도움이 안 될 것이다 : \_\_ : \_\_ : \_\_ : \_\_ : \_\_ : 도움이 될 것이다

**2. 현재 본인이 교실에서의 말하기/쓰기 평가 시행 정도**

성적에 반영하는 평가의 하나로서 다음 평가에 대한 빈도의 해당란에 V표 해주십시오.

- 1) 현재 교실에서 영어 말하기(speaking) 평가의 시행 빈도:  
 A: 거의 매시간\_\_ B:(선택 0표)주/월/학기 당 \_\_회 정도 C: 거의 없음
- 2) 현재 교실에서 영어 쓰기(writing) 평가의 시행 빈도:  
 A: 거의 매시간\_\_ B:(선택 0표)주/월/학기 당 \_\_회 정도 C: 거의 없음

**3. 말하기 평가 실시에 대한 문제점**

선생님께서 말하기 평가를 행함에 있어, 느끼는 문제들에 대해 V 표해주십시오.

- 1) 나의 말하기 능력 부족:  
 문제 안 됨 : \_\_ : \_\_ : \_\_ : \_\_ : \_\_ : 매우 심각
- 2) 말하기 시험 문항 작성 능력 부족:  
 문제 안 됨 : \_\_ : \_\_ : \_\_ : \_\_ : \_\_ : 매우 심각
- 3) 평가 척도(스케일) 작성 능력 부족:  
 문제 안 됨 : \_\_ : \_\_ : \_\_ : \_\_ : \_\_ : 매우 심각
- 4) 실력을 실제 판정할 때의 애매함:  
 문제 안 됨 : \_\_ : \_\_ : \_\_ : \_\_ : \_\_ : 매우 심각
- 5) 학생이 많아 면접시간이 부족:  
 문제 안 됨 : \_\_ : \_\_ : \_\_ : \_\_ : \_\_ : 매우 심각
- 6) 기타 문제점:(간단히)\_\_\_\_\_

**4. 쓰기 평가 실시에 대한 문제점**

- 1) 쓰기 시험 문항 작성 능력 부족:  
 문제 안 됨 : \_\_ : \_\_ : \_\_ : \_\_ : \_\_ : 매우 심각
- 2) 평가 척도(스케일) 작성 능력 부족:  
 문제 안 됨 : \_\_ : \_\_ : \_\_ : \_\_ : \_\_ : 매우 심각
- 3) 실력을 실제 판정할 때의 애매함:  
 문제 안 됨 : \_\_ : \_\_ : \_\_ : \_\_ : \_\_ : 매우 심각
- 4) 학생이 많아 채점시간이 부족:



문제 안 됨 : \_ : \_ : \_ : \_ : \_ : 매우 심각

5) 기타 문제점:(간단히)\_\_\_\_\_

### 5. 영어 말하기/쓰기 평가의 윤리적/심리적 문제

1) 영어 말하기/쓰기 평가를 할 때, 나의 관정이 학생들의 학업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 \_ : \_ : \_ : \_ : \_ : 매우 크다

2) 영어 말하기/쓰기 평가를 할 때, 나의 관정이 학생들의 장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 \_ : \_ : \_ : \_ : \_ : 매우 크다

3) 인터뷰와 같은 영어 말하기 평가를 할 때, 학생들의 심리적 불안에 대해 나는:

거의 신경 안 쓴다 : \_ : \_ : \_ : \_ : \_ : 매우 신경을 쓴다

4) 영어 말하기 평가에서 관정을 하는 순간, 나 자신은 심리적으로

부담이 전혀 없다 : \_ : \_ : \_ : \_ : \_ : 매우 부담이 된다

5) 영어 쓰기 평가에서 관정을 하는 순간, 나 자신은 심리적으로

부담이 전혀 없다 : \_ : \_ : \_ : \_ : \_ : 매우 부담이 된다

**\*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오량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599

전 화: 02) 880-7674

이메일: oryang@snu.ac.kr

Received on June 15, 2010

Reviewed on Oct 25, 2010

Revised version received on Nov 15, 2010

Accepted on Dec 3, 2010